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초등학교 교직원의 의식 조사 연구

안성훈
서원초등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용의 효과성에 대한 교직원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특히, 새롭게 도입하려다가 많은 반대에 부딪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NEIS의 도입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식 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표집 대상을 시내 소재 학교와 시외 소재 학교, NEIS 시범 운영 학교와 비시범 운영 학교로 구분하여 표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도입되고 있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운영 실태, 활용 효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언함으로써 향후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Personnel for Educ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Seonghun Ahn
Seo Won Elementary School

ABSTRACT

In this paper, I survey the actual condition of management of EIMS(Educ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hich have been used at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 investigate of the opinion of school personnel for the effect of EIMS. I specially research on the effect and problem of NEIS.

The research method which I used is a questionnaire. After I divide the school into the city and the suburban, into the NEIS model school and the other school. I sample school personnels. The collecting data is analyzed by the frequency, percentage, cumulative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In this paper, I survey the actual condition, the effect and the problem of management of EIMS and propose a improvement measure. I hope a improvement measure which I propose in this paper helps them to manage the EIMS in the further.

Keyword : Educati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1. 서론

교육부에서는 2002년 10월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및 교원업무 경감,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 등을 목표로하는 전국 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하 NEIS)을 개통하였다[7].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에서 새로운 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인 NEIS의 시행을 앞두고 강력하게 반발하였

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등의 5개 영역에 대한 시행을 2003년 3월로 연기하고 나머지 22개 영역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것 또한 반대 여론에 밀려 2003년 4월, 5월로 5개 영역 시행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에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고 교육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의 3개 영역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8].

NEIS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업무 경감,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막대한 교육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지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교육계 내부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 정책과 교육계 내부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까지 일선 초·중등학교에 보급되었거나 보급될 예정이었던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그 활용효과와 새로운 시스템인 NEI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교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진단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2.1 개념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이란 각급 학교에서 질 높은 학교교육과 교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경감을 위해 각종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급된 모든 전산처리 시스템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지금까지 일선 학교에 도입된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은 '96년 보급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을 시초로 학교건강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2.2 변천 과정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지식 기반 인프라 구축과 전산화를 통한 교원들의 일상적인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1996년 3차 교육개혁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2].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개발 과정은 대학입시 업무 전산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

산화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차츰 건강기록부와 교무/학사업무, 교육행정업무, 교육정보유통 업무, 학교경영 업무, 교육정보 안내 업무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가면서 학교생활(건강)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변천되어 왔다.

2.2.1 학교생활(건강)기록부 전산프로그램

초·중·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은 '96년 대입 전형을 전산화하기 위해 개발되어 '98년에는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되었고, '99년도에는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 1~5학년까지 확대 운영되다가 2001년부터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다[2]. '96년 최초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프로그램은 학교생활기록부의 13개 항목 중 인적사항, 출결사항, 교과성적, 봉사활동 등의 4개 항목만을 전산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나 '97년 13개 전 항목의 전산화로 변경되어 이전 수기 형태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완전 대체하게 되었다[10].

학교건강기록부 전산프로그램은 '99년 도입되어 운영되다가 역시 2001년부터는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다[5].

학교생활(건강)기록부 전산프로그램은 개별처리형 형태로 운영되어 SA(Stand Alone)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2.2.2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개별처리형 방식(SA)의 학교생활(건강)기록부 전산 프로그램의 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전산화자료의 다양한 활용으로 교수-학습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클라이언트/서버(CS) 방식으로 구축된 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이다[2].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학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정장부와 보조자료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무업무지원시스템, 학내 구성원간의 정보 공유와 교육행정기관과의 정보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보유통시스템, 물품관리, 회계관리 등 학교 행정실 업무의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경영업무지원시스템, 증가하는 지식의 다양성과 복잡성, 중첩성을 효과적으로 조직·관리하고 대국민 교육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통합안내시스템 등 4개 업무영역의 정보화를 지원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2].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97년도에 개발되어 시범운영을 거친 후 '98년도에 전국 4,462개교의 중·고등학교에 보급되어 SA용 학교생활(건강)기록부와 병행처리 하도록 운영되었고 '99년도에는 3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2000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운영되었다[2].

그러나 시스템이 각 일선 학교마다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하므로 많은 시스템 구축 예산과 전문 운영 인력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1999)에서는 “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의 집중식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2.2.3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란, 교육 행정업무의 10개 대영역(기획, 교원인사, 일반인사, 급여, 교육장학, 보건체육, 재정, 시설, 법인, 기타행정)을 전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상호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 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 교직원 업무의 경감 등의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전국단위의 통합연계 시스템이다[7].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정보시스템이다[9]. NEIS는 교무·학사, 인사 등 전체 27개 업무에 적용되며 그중 22개 영역은 2002년 10월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하였고 나머지 5개 영역 교무·학사, 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등은 2003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2.3 관련 법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 및 인성에 정보를 교육자가 작성·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에 두고 있으며, 작성한 정보에 대한 전산 처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2001.3.29. 교육부

훈령 제616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은 1997년 12월에 대입 전형을 완전 전산화한 교육부 훈령 558호가 최초 공포되었고 이후 교육과정의 변경에 따라 1999년 5월 교육부 훈령 제587호, 2000년 3월 교육부 훈령 제602호, 2000년 8월 교육부 훈령 제607호, 2001년 3월 교육부 훈령 제616호 등으로 4차례 개정되었다[6].

이와 같은 법규에 근거해서 SA와 CS에 학교장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작성·관리할 수 있었고 NEIS에서는 학교장의 범위를 넘어 교육감이 정보가 탑재된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므로 현재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교사, 교육행정직원 등 학교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5개 학교(시지역 2개교, 시외지역 3개교) 108명이고 이중 전년도에 NEIS를 시범 운영한 학교는 3개교 57명(52.8%), 비시범 운영 학교는 2개교 50명(46.3%), 결측값 1(0.9%)이다. 연구 대상을 직책별로 보면 평교사 71명(65.7%), 부장교사 23명(21.3%), 교감/장 2명(1.9%), 보건교사 2명(1.9%), 교육행정직원 9명(8.3%), 결측값 1(0.9%)이며, 근무 지역별로 보면 시지역 71명(65.7%), 시외지역 36명(33.3%), 결측값 1(0.9%)이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현장 교직원들의 학교교육정보 관리 시스템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교육현장과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이미 도입되어 활용된 SA와 CS의 활용효과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할 예정이었던 NEI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어 작성하였고 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이 15개 문항, 학교교육정보 관리시스템에 관한 문항이 14개 문항으로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5명의 정보교육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고 4곳의 초등학교 교직원 7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3.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예비 조사는 2003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3년 3월 3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1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108부를 회수(72%)하여 이중 부실 기재된 1부를 제외한 107부(71.3%)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0.0을 사용하여 각 항목별로 빈도와 백분율, 누적백분율을 산출하였고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 효과

일선 학교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보급되어 활용되어온 SA와 CS의 활용 효과와 2003년부터 모든 영역이 전면적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던 NEIS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4.1.1 SA와 CS의 활용 효과

지금까지 사용된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해 절의한 결과 <표 1>과 같이 효과가 있다는 쪽의 응답이 58.7%, 효과가 없다는 쪽의 응답이 41.3%로 나타났다.

<표 1> SA와 CS의 교육적 활용 효과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효과적	5	4.8
효과적	56	53.8
유효	26	25.0
비효과적	17	16.3
합계	104	100.0
결측	4	
시스템결측값	4	
합계	108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이 교육경력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경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활용 효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

표 2>와 같다. 자유도가 18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37.764이므로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과 교육경력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교육경력별 SA와 CS의 활용효과에 대한 응답

	SA와 CS의 활용 효과				전체
	매우효과적	효과적	비효과적	매우비효과적	
5년 이하	빈도	19	8	2	29
	%	65.5%	27.6%	6.9%	100.0%
6-10년	빈도	8	2	4	14
	%	57.1%	14.3%	28.6%	100.0%
11-15년	빈도	5	4	6	15
	%	33.3%	26.7%	40.0%	100.0%
16-20년	빈도	2	5	1	8
	%	25.0%	62.5%	12.5%	100.0%
21-25년	빈도	1	4	2	9
	%	11.1%	44.4%	22.2%	100.0%
26-30년	빈도		6	3	11
	%		54.5%	27.3%	100.0%
31년 이상	빈도	4	11	2	17
	%	23.5%	64.7%	11.8%	100.0%
전체	빈도	5	55	26	103
	%	4.9%	53.4%	25.2%	100.0%

$$\chi^2=37.764, df=18, p=0.004$$

<표 2>를 살펴보면 교육경력 11년에서 20년의 경력을 가진 교직원들이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 경력대의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다른 경력대의 교직원들보다 업무량이 많은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무량이 많은 교직원들은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 교육경력 11년~20년인 교직원들의 직책

직책	평교사	부장교사	보건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계
빈도	10	9	2	1	1	23
백분율	43.4%	39.1%	8.7%	4.4%	4.4%	100%

또한,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이 교직원의 직책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직책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활용 효과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유도가 18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34.995이므로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과 직책은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직책이 부장인 교직원들과 보건교사들이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표 2>와 일맥상통한 의미로 학교에서 업무량이 많은 교직원들은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4> 직책별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견해

		SA와 CS의 활용 효과				전체
		매우 효과적	효과적	비효과적	매우 비효과적	
평교사	빈도	3	44	12	11	70
	%	4.3%	62.9%	17.1%	15.7%	100.0%
부장교사	빈도	1	7	10	5	23
	%	4.3%	30.4%	43.5%	21.7%	100.0%
교감	빈도		1			1
	%		100.0%			100.0%
교장	빈도	1				1
	%	100.0%				100.0%
보건교사	빈도			1	1	2
	%			50.0%	50.0%	100.0%
정신건강	빈도		1	1		2
	%		50.0%	50.0%		100.0%
정신	빈도		2	2		4
	%		50.0%	50.0%		100.0%
전체	빈도	5	55	26	17	103
	%	4.9%	53.4%	25.2%	16.5%	100.0%

$\chi^2=34.995, df=18, p=0.009$

4.1.2 NEIS의 활용 효과 예측

“NEIS의 활용이 어느 정도의 교육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질의한 결과 <표 5>와 같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쪽의 응답이 53.8%,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쪽의 응답이 46.2%로 나타났다.

<표 5> NEIS의 활용 효과 예측

	빈도	유효퍼센트	
유효	매우효과적	11	10.6
	효과적	45	43.3
	비효과적	29	27.9
	매우비효과적	19	18.3
	합계	104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4	
	합계	108	

NEIS의 활용효과 예측에 대한 견해가 2002년 NEIS 운영 연구시범학교 교직원과 비시범학교 교직원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시범학교근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활용효과예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자유도가 3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11.007이므로 NEIS 활용효과 예측에 대한 응답과 NEIS 시범운영연구학교 근무 여부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을 살펴보면 2002년도부터 NEIS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68.4%가 NEIS의 활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시범학교 교직원들은 36.9%만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NEIS 시범학교 근무 여부에 따른 NEIS 활용 효과 예측

NEIS활용효과예측	근무학교	NEIS 시범학교		합계
		근무	비근무	
매우 효과적	빈도	9	2	11
	%	15.8%	4.3%	10.7%
효과적	빈도	30	15	45
	%	52.6%	32.6%	43.7%
비효과적	빈도	11	17	28
	%	19.3%	37.0%	27.2%
매우 비효과적	빈도	7	12	19
	%	12.3%	26.1%	18.4%
합계	빈도	57	46	103
	%	100.0%	100.0%	100.0%

$\chi^2=11.007, df=3, p=0.012$

4.2 NEIS 운영

4.2.1 NEIS의 도입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NEIS는 2002년 11월부터 부분 시행되다가 2003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권 침해, 정보 유출 위험, 업무 가중 등의 많은 반론에 부딪혀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담보 상태에 놓인 NEIS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질의한 결과 <표 7>과 같이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37.4%,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62.6%로 나타났다.

<표 7> NEIS 도입에 대한 견해

	빈도	유효퍼센트
적극 찬성	3	2.8
찬성하나 시행후 보완	37	34.6
유효 반대하나 보완후 시행	56	52.3
적극 반대	11	10.3
합계	107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	
합계	108	

가. 성별 NEIS 도입 견해

성별에 따라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유도가 3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8.009이므로 성별과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을 살펴보면 남자는 49.5%, 여자는 67.6%가 NEIS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반대의 견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별에 따른 NEIS 도입 견해

NEIS 도입견해 \ 성별		남	여	합계
		빈도	빈도	빈도
적극 찬성	빈도	3	0	3
	%	9.1%	0%	2.8%
찬성하나 시행 후 보완	빈도	13	24	37
	%	39.4%	32.4%	34.6%
반대하나 보완 후 시행	빈도	14	42	56
	%	42.4%	56.8%	52.3%
적극 반대	빈도	3	8	11
	%	9.1%	10.8%	10.3%
합계	빈도	33	74	107
	%	100.0%	100.0%	100.0%

$\chi^2=8.007$, $df=3$, $p=0.046$

나. 연수횟수별 NEIS 도입 견해

NEIS에 대한 연수를 받은 횟수에 따라 NEIS 도

입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수횟수를 독립변수로,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NEIS에 대한 연수횟수가 0회인 교직원의 19.0%, 1~2회인 교직원의 30.2%, 3~4회인 교직원의 72.7%, 5~6회인 교직원의 33.3%, 7회 이상인 교직원의 40.0%가 NEIS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도가 12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26.601이므로 연수횟수와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수의 이수 여부가 NEIS 도입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NEIS 연수횟수별 NEIS도입 견해

	빈도	NEIS 연수횟수					합계
		0회	1-2회	3-4회	5-6회	7 이상	
1	빈도		1	1		1	3
	%		1.9%	4.5%		20.0%	2.9%
2	빈도	4	15	15	1	1	36
	%	19.0%	28.3%	68.2%	33.3%	20.0%	34.6%
3	빈도	12	33	5	2	3	55
	%	57.1%	62.3%	22.7%	66.7%	60.0%	52.9%
4	빈도	5	4	1			10
	%	23.8%	7.5%	4.5%			9.6%
합계	빈도	21	53	22	3	5	104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26.601$, $df=12$, $p=0.05$

다. 담당업무별 NEIS 도입 견해

담당업무에 따라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담당업무를 독립변수로,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자유도가 27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51.629이므로 담당업무와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0>을 살펴보면 6학년 담임교사의 87.6%, 보건교사 100%, 교육행정직원의 77.8%가 NEIS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졸업 업무, 보건 업무, 행정 업무에서는 NEIS의 도입이 불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 직책별 NEIS 도입 견해

직책에 따라 NEIS 도입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책을 독립변수

<표 10> 담당업무별 NEIS 도입 견해

		담당학년						전담	관리자	보건	행정	합계
		1학년 담당	2학년 담당	3학년 담당	4학년 담당	5학년 담당	6학년 담당					
NEIS 도입 견해	1 빈도 %						1 6.3%		1 50.0%		1 11.1%	3 2.9%
	2 빈도 %	7 33.3%	8 57.1%	4 36.4%	3 33.3%	8 57.1%	1 6.3%	2 33.3%	1 50.0%		1 11.1%	35 33.7%
	3 빈도 %	12 57.1%	6 42.9%	7 63.6%	6 66.7%	5 35.7%	9 56.3%	2 33.3%		2 100.0%	7 77.8%	56 53.8%
	4 빈도 %	2 9.5%				1 7.1%	5 31.3%	2 33.3%				
합계	빈도 %	21 100.0%	14 100.0%	11 100.0%	9 100.0%	14 100.0%	16 100.0%	6 100.0%	2 100.0%	2 100.0%	9 100.0%	104 100.0%

$\chi^2=51.629$, $df=27$, $p=0.05$

로 사용하고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자유도가 18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50.478이므로 직책과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1>을 살펴보면 6학년 보건교사 100%, 행정실장 75%, 교육행정직원 80%가 NEIS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산 처리해야될 업무가 많은 직책에서는 NEIS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더욱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교원단체 가입별 NEIS 도입 견해

교원단체 회원에 따라 NEIS 도입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원단체를 독립변수로,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자유도가 6인 신뢰도 수준 95%에서 χ^2 값은 18.151이므로

교원단체 회원별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를 살펴보면 전교조 가입 교사의 93.8%, 교총 가입 교사의 47.5%, 비가입 교사의 62.5%가 NEIS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직책별 NEIS 도입에 관한 견해

		직책						합계	
		평교사	부장교사	교감	교장	보건교사	행정실장		행정직원
NEIS 도입 견해	1 빈도 %	1 1.4%			1 100.0%		1 25.0%	3 2.8%	
	2 빈도 %	26 37.1%	9 39.1%	1 100.0%			1 20.0%	37 34.9%	
	3 빈도 %	35 50.0%	12 52.2%			2 100.0%	3 75.0%	4 80.0%	56 52.8%
	4 빈도 %	8 11.4%	2 8.7%						10 9.4%
합계	빈도 %	70 100.0%	23 100.0%	1 100.0%	1 100.0%	2 100.0%	4 100.0%	5 100.0%	106 100.0%

$\chi^2=50.478$, $df=18$, $p=0.05$

<표 12> 교원단체별 NEIS 도입에 관한 견해

		교원단체가입			합계
		전교조	교총	비가입	
NEIS 도입 견해	1 빈도		2		2
	%		3.3%		1.9%
	2 빈도	1	30	6	37
	%	6.3%	49.2%	22.2%	35.6%
3 빈도	11	26	18	55	
%	68.8%	42.6%	66.7%	52.9%	
4 빈도	4	3	3	10	
%	25.0%	4.9%	11.1%	9.6%	
합계 빈도	16	61	27	104	
합계 %	100.0%	100.0%	100.0%	100.0%	

$\chi^2=18.151, df=6, p=0.05$

바. NEIS 도입의 반대 이유

NEIS 도입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의(복수 응답 가능)에 대해 <표 7>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67명중 59명(88.1%)이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49명(73.1%)이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44명(65.7%)이 “여론을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 업무 추진”, 44명(65.7%)이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41명(61.2%)이 “업무 가중”, 41명(61.2%)이 “NEIS 운영 기반 미흡”, 39명(58.2%)이 “CS로 교육정보관리 충분”, 39명(58.2%)이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37명(55.2%)이 “NEIS 연수 부족”이라고 각각 응답하였으며, 그 외 4명(6.0%)이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응답 결과를 살펴볼 때 NEIS 도입을 반대하는 교직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NEIS가 인터넷 기반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보안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NEIS의 단계별 보안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조치에 대해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107명중 9명(8.4%)이 “문제없다”고 답변하였고, 74명(69.2%)이 “불안하다”고 답변하였다.

NEIS 보안 조치가 불안하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의(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자 74명중 61명(82.4%)이 “빈번한 보안사고에 비추어 본 현 단계의 보안기술 불신”으로 응답하였고 19명(25.7%)이 “사용자 보안 지침 부재”로 응답하였으며, 14명(18.9%)이 “NEIS 보안 시스템 불신”으로 응답하였다.

4.1.2 NEIS의 시행 가능성

현재 NEIS는 반대 여론에 부딪쳐 전국적인 동시 시행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은 수기나 SA, CS, NEIS 등의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중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는 선택 방법을 놓고 상당한 갈등과 고민을 낳고 있다.

현재 시행이 유보되어 있는 NEIS의 추후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이는 “<표 7> NEIS 도입에 대한 견해”와 비슷하게 “보완후 시행(44.6%)”과 “시행후 보완(34.6%)” 두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부 NEIS 시행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항목은 CS로, 나머지는 NEIS로 병행 운영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향후 NEIS 시행에 대한 견해

	빈도	유효퍼센트
유효	계획대로 시행	9.3
	시행후 보완	34.6
	CS와 병행 시행	4.7
	보완후 시행	44.9
	완전 폐기	6.5
합계	107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
	합계	108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육계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활한 활용 대책을 모색한다. 문제점 파악을 위해 먼저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었거나 새롭게 도입하려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사용자인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활용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잦은 변경이 시스템 활용의 효과를 감소시켰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은 세 번이나 변경되었고 이와 같은 잦은 시스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6.1%가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행과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고 33.6%가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답하였다. 결국 잦은 시스템 변경은 교육현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잦은 시스템 변경이 활용 효과를 감소시키는 구체적인 이유는 시스템이 새로 도입될 때마다 초기 업무량의 과중으로 시스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시스템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복잡하거나 과중한 업무에서는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 효과가 높지 않았다. “<표 2> 교육경력별 SA와 CS의 활용효과에 대한 응답”과 “<표 4> 직책별 SA와 CS의 활용 효과에 대한 견해”에 의하면 교육경력이 11년에서 20년 정도인 교직원, 부장교사, 보건교사 등은 다른 연령대나 직책의 교직원들보다 SA와 CS의 활용 효과와 NEIS의 활용 효과 예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 이것은 업무량이 많은 교직원일수록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활용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인 NEIS의 도입에 대한 의견은 <표 7>과 같이 반대가 우세하였으며,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NEIS의 보안에 대한 불신이며, NEIS의 보안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빈번한 보안사고에 비추어 본 현 단계의 보안기술 불신”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NEIS 도입 반대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NEIS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은 NEIS의 운영 경험이 적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6>에 의하면 2002년부터 NEIS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68.4%가 NEIS의 활용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비시범학교 교직원들은 36.9%만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시범학교 교직원 중 NEIS 도입을 반대하는 교직원의 84.5%(37명중 32명)가 NEIS 도입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고 응답했다. 또한, <표 9>에 의하면 NEIS에 대한 연수를 한번도 받지 않은 교직원이 연수 경험이 있는 교직원보다 더욱 심하게 NEIS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EIS 연수 경험이 없는 교직원 중 NEIS 도입을 반대하는

교직원의 77.8%(18명중 14명)가 NEIS 도입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교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고찰해 볼 때 향후 새롭게 도입되어 운영하려고 하는 NEIS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한다.

첫째, NEIS의 원만한 도입을 위해서는 과중한 초기 업무에 대한 입력 작업이 보완되어야 한다. 교직원들의 NEIS 도입에 대한 견해는 “<표 7> NEIS 도입에 대한 견해”와 같이 반대가 우세하며, “<표 10> 담당업무별 NEIS 도입에 대한 견해”와 “<표 11> 직책별 NEIS 도입에 대한 견해”에 의하면 담당업무별로는 6학년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그리고 교육행정직원이, 직책별로는 보건교사와 교육행정직이 반대의 견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초기 업무량이 많아지는 업무나 직책을 담당한 교직원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NEIS의 시행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과중한 초기 업무량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반대의 의견을 불식시키는 해결책이라 볼 수 있다.

둘째, NEIS 도입에 대한 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용자 연수와 시스템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NEIS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는 교직원과 NEIS 운영 비시범학교의 교직원들이 NEIS 도입 반대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초기 업무에 대한 부담, 시스템 사용법을 새로 배워야 하는 연수의 부담, 빈번한 사회적 사건, 사고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을 불안해하는 심리적 부담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NEIS의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정보통신 보안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용자 연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설문 응답자 105명중 21명(20.0%)이 당초 NEIS 전면 시행 계획이었던 2003년 3월까지 NEIS 관련 연수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NEIS 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4명중 47명(60.0%)은 교내 자율연수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동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NEIS 연수가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NEIS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자 91명중 43명(47.3%)이 “사용자 연수”, 37명(40.7%)이 “효율적인 NEIS 관련 업무 분장”, 23명(25.3%)이 “사용자 PC 업그레이드”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NEIS 사용자인 교직원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자 연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NEIS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NEIS 운영에 현재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충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106명의 응답자중 11명(10.4%)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38명(35.8%)이 “보통이다”, 53명(50.0%)이 “미흡하다”, 4명(3.8%)이 “아주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NEIS를 그 동안 운영해온 시범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57명중 7명(12.3%)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20명(35.1%)이 “보통이다”, 28명(49.1%)이 “미흡하다”, 2명(3.5%)이 “아주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NEIS 운영의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57명에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강해야 하는지를 질문(복수 응답)한 결과 46명(80.7%)이 “NEIS 서버 기능”, 38명(66.7%)이 “교직원의 PC 성능”, 34명(60.0%)이 “통신 속도”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NEIS 서버의 사용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원만한 NEIS의 도입을 위해서 교육부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계획보다 NEIS를 조기 시행함에 있어 교육부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106명의 응답자중 41명(38.7%)이 “반대 의견 적극 수렴할 것”, 32명(30.2%)이 “행정 편의적 태도 지양할 것”, 20명(18.9%)이 “문제는 있지만 여건상 부득이한 처사임”, 13명(12.3%)이 “정당한 처사임”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응답자의 68.7%가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NEIS 시행에 있어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원만한 NEIS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NEIS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 NEIS의 향후 시행에 대한 견해”에 의하면 현재의 NEIS를 폐기하자는 의견은 응답자의 6.5%에 불과했으며, 시행 후 보완(34.6%)하거나 보완 후 시행(44.9%)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79.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NEIS의 폐기

보다는 보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부는 NEIS의 원만한 도입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교육정보 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에 많은 예산 소요와 과다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사용자 연수, 운영 기반 시설 확보 등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하며, 도입된 시스템은 완전히 정착되어 활용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자료수집을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고 배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NEIS 도입의 반대 의견으로 새롭게 제기된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전교조와 교육부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NEIS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한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1] 강태원 외(2001). 효율적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연구 Vol.2001 No.6.
- [2] 교육부(1999).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소식지 제2호, 1-4.
- [3] 교육부(1999).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규정.
- [4] 교육부(1999).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5] 교육부(1999). 학교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6] 교육부(2000).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중 개정지침 해설.
- [7] 교육부(200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내. <http://helpsys.moe.go.kr/>
- [8] 교육부(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교무·학사 업무 등 3개영역 시행지침. 교육부 보도자료. <http://www.moe.go.kr/>
- [9] 김학룡(1999).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부산광역시 교원연수원.
- [10] 한국교육학술정보원(1999). ‘99교육정보화백서.

[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1999). 초·중등학교 종합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연구, 연구보고 CR 1999-1.



안 성 훈

1990 청주교대 교육학학사
 1997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 석사
 2001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육학 박사
 1997~현재 한국교원대, 청주
 교대 시간강사

2004~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관심분야: 컴퓨터교육, 원격교육, WBI
 E-Mail: sernself@hanmail.net

<NEIS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①남 ②여
2. 귀하의 연령?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⑤60대
3. 귀하의 교육경력? ①5년이하 ②6~10년 ③11~15년
 ④16~20년 ⑤21~25년 ⑥26~30년 ⑦ 31년 이상
4. 귀하의 정보(컴퓨터)관련 연수 횟수는?
 ① 1번 ② 2번 ③ 3번 ④ 4번 ⑤ 5번 이상
5. 귀하의 정보(컴퓨터)관련 연수 이수 총시간은?
 ①30시간이하 ②31~60시간 ③61~90시간 ④91~120
 시간 ⑤121~150시간 ⑥151~180시간 ⑦181시간이상
6. 귀하의 NEIS관련 연수횟수(교내자율연수포함)는?
 ①0회 ②1~2회 ③3~4회 ④5~6회 ⑤7회 이상
7. 귀하의 NEIS관련 연수총시간(교내자율연수포함)?
 ①0시간 ②1~10시간 ③11~20시간 ④21~30시간
 ⑤31시간 이상
8. 귀하께서 NEIS관련 연수를 받은 기관은? (해당되
 는 것 모두 선택)
 ①학교장 주관(교내 자율연수) ②시군교육청 주관
 ③ 도교육청(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원) 주관
 ④ 교원단체 주관 ⑤ 교사 동호회 주관
9. 귀하께서 취득하신 정보관련 자격(자격증, 기능장
 등)의 수는?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이상
10. 귀하의 근무지역은?
 ① 면소재지 이하 ② 읍소재지 ③ 도시

11. 귀하의 담당 학년은?
 ①()학년담임 ②()과 교과전담
 ③ 관리자(교장,교감) ④보건교사 ⑤교육행정직
12. 귀하의 직책은?
 ①교사 ②부장교사 ③교감 ④교장 ⑤보건교사
 ⑥행정실장 ⑦행정직(영양사 포함)
13. 귀하의 주 담당 업무는?
 ①교무분야 ②연구분야 ③정보분야 ④윤리분야
 ⑤체육분야 ⑥환경분야 ⑦ 행정분야
14. 귀하는 NEIS 운영 시범 연구학교에서 근무하십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귀하께서 가입하신 교원단체는?
 ①전교조 ②교총 ③한교조 ④비가입
16. NEIS 도입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적극찬성 ②찬성하나 시행 후 보완 필요
 ③반대하나 보완 후 도입 가능 ④적극반대
17. NEIS 도입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해당되는
 것 모두 순위대로 표기)?
 ①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
 ②교육 전산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종합생활기록
 부→SA→CS→NEIS)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
 ③교육 전산화 시스템의 잦은 변경(종합생활기록
 부→SA→CS→NEIS)으로 예산 낭비()
 ④교사나 학생에 대한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
 ⑤교사의 교육활동 및 근무 실태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
 ⑥NEIS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미흡
 하기 때문()
 ⑦여론 수렴을 무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독자 추
 진()
 ⑧CS만으로도 교육부문 전산화가 충분하기 때문()
 ⑨NEIS 활용에 대한 연수 부족으로 현장 정착이
 어렵기 때문()
 ⑩기타() () ()
18. NEIS가 도입되면 교사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가
 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①기존의 CS 자료를 NEIS로 이관하게 되므로 업
 무 폭주는 예상되지 않는다.
 ②NEIS 시행 초기에만 기초 자료 입력을 위한 업
 무 폭주가 예상된다.
 ③NEIS는 상세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해야 하
 므로 계속적인 업무 폭주가 예상된다.

- ④ 모르겠다
19. 지금까지 교육전산화를 위해 종합생활기록부→SA→CS→NEIS 등 모두 4차례의 시스템 변경이 이루어 졌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불가피한 변경이었다.
 ② 불가피한 변경이기는 하나 계획과 시행이 체계적이지 못했다.
 ③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실적 위주의 행정조치였다.
 ④ 모르겠다
20. 지금까지 사용된 교육전산화 시스템(종합생활기록부, SA, CS)의 활용효과에 대한 견해는?
- 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하였다.
 ② 효과는 있었지만 투자한 만큼 거두지는 못했다.
 ③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④ 업무 가중으로 역효과를 초래했다.
21. NEIS의 활용이 어느 정도의 교육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② 효과는 있지만 투자한 만큼 거두지는 못할 것이다.
 ③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④ 업무 가중으로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22. 교육부는 NEIS의 보안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외부 해킹에 대비하여,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서버보안 등 최신 보안장비 설치
-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서버(WEB 서버)와 자료 관리 서버 분리 운영
- 내부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침입탐지시스템, DB 및 시스템 접속 로그 관리, 업무별 권한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
- 비인가자에 의한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PKI 방식에 의한 비밀키 인증방식 채택

- ① 현 보안책으로 정보유출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② 현 보안책으로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어렵다.
 ③ 내용을 잘 모르겠다.
23. 교육부가 제시한 NEIS의 보안책이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해당되는 것 모두 선택)?
- ① 교육부가 제시한 보안 시스템이 신뢰하기 어렵다.
 ② 사회적으로 빈번한 정보유출 사고로 볼 때 지금의 보안기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③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대한 보안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4. NEIS가 교사의 교육활동 및 근무 실태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 ② 심각하다 ③ 보통이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25. 현재 NEIS를 운영하기에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충분하다 ② 충분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미흡하다 ⑤ 아주 미흡하다
26. NEIS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면 가장 먼저 보강해야할 부분은?
(해당되는 것 모두 순위대로 표기)
- ① 통신 속도() ② 컴퓨터 성능()
 ③ 서버 기능() ④ 기타() ()
27. NEIS의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되므로 인해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의 태도에 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반대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6개월 늦춰 준비하였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
 ② 문제는 있지만 전자정부 구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③ 많은 문제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반대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이다
 ④ 행정 편의적인 태도로 현장을 무시한 밀어부치기식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8. NEIS의 앞으로 운영에 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우려는 있지만 큰 문제가 없으므로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② 시행하면서 많은 반대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해 가야할 것이다
 ③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에 관련된 5개 영역은 CS로, 나머지는 NEIS로 운영한다.
 ④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시행을 늦춘 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⑤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므로 폐기해야 한다
29. NEIS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일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결되어야할 과제는?
(해당되는 것 모두 순위대로 표기)
- ① 효율적이고 적정한 NEIS 관련 업무 분장 ()
 ② 사용자 연수 () ③ 컴퓨터 업그레이드 ()
 ④ 기타() ()